

가뭄에 애타는 농부의 마음 나눔과 봉사 손길을 내밀다

고창 양돈퇴역비 이찬영 대표, 살수차량 지원

땀을 뻘치고 있는 폭염 속에 가뭄 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소재 '고창군 양돈퇴역비(유)' 이찬영 대표가 면내 한해 피해 극심지역에 살수차량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나눔 봉사에 동참했다.

이찬영 대표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마름이 극심한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15톤 살수차량 3대를 지원하여 아산면 중월리, 목동리 등 가뭄 극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고창 양돈퇴역비(유)는 가축분뇨와 부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자연순환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와 농업농가의의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 목적에 맞게, 평소에도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찬영 대표는 "물이 채워진 논을 보며 기뻐하는 농민들을 보면 내 부모형제의 일처럼 기쁘다"며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한 살수차량 기사들 역시 힘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할 각오이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도 산불진화차량 2대를 동원해 아산면 중월리 일대에서 2주회 이상 급수활동을 펼치면서 가뭄피해 해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소재 '고창군 양돈퇴역비(유)' 이찬영 대표가 면내 한해 피해 극심지역에 살수차량을 지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나눔 봉사에 동참했다.

갈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해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봉사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농작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에 대비와 같은 봉사는 함께 행복한 고창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인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재능기부 이어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귀농귀촌협의회 재능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칭찬을 받고 있다.

김제시 농업정책과(과장 김태한)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조정희)는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진봉면의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벽지 및 장판을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뜻 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동안 낡고 찢어진 벽지와 장판에서 하루 종일 보내온 독거노인 어르신 세대들 방문해 김제시 귀농귀촌회원들이 노후화 된 장판과 벽지 등을 교체하면서 참된 봉사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벽지 및 장판 교체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 분들과 저소득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노래 공연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귀농귀촌협의회는 김제 효도림 요양병원과 미래요양병원 예술 공연 재능기부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광노인복지센터, 경로당에 에어컨 후원

신광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성찬)가 최근 합라면 미등북경로당인 탐고지경로당에 에어컨(15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갓 에어컨 고장으로 탐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신광노인복지센터가 탐고지경로당에 스탠드 에어컨 1대를 후원한 것.

김성찬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탐고지경로당 회장은 "무더위 속에 번번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신광노인복지센터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신광노인복지센터는 1999년 개관한 이래 지역사회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방문, 경로당 나눔 활동 등의 지역사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읍 친환경아리울협동조합, 드림스타트 가정에 삼겹살 제공

친환경아리울협동조합(조합장 장형기 이하 아리울협동조합)은 지난 14일 아리울 홍보관에서 정읍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150여명에게 삼겹살 등의 접시를 제공했다.



아리울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외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접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푸짐한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경찰,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로 농산물 절도예방 구슬땀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주계파출소(소장 김홍근)는 고추 등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맞춤형 탄력순찰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탄력순찰은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를 신청 받아 범죄예방 맞춤형 순찰을 하는 제도로, 순찰 노선으로 선정된 장소를 집중 순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찰이다.

최근 고추 등 농산물을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농산물 절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관할 파출소에서는 마을별 건조장 위치와 순찰 희망 장소를 주민들로부터 접수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 남원 산내파출소 치안현장방문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난 14일 남원경찰서 산내파출소를 찾아 후서기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치안현장의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날 강인철 청장은 11년 만에 찾아온 맹렬한 폭염 속에서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남원 지리산 뱀사골은 우리나라 대표 계곡 중의 하나로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만큼 인사 사고 등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뱀사골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경찰관 대상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실시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최근 임실경찰서 강당에서 임실군 경찰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생명사랑지킴이(Gate Keeper)는 주변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으로 알려진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 심각성과 자살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보는 방법을 위해 진행됐다.

군보건의료원 김형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변 동료,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전준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